

완도 신지~고금 잇는다

총 4.24km 연륙교 742억 들여 10월 착공 서남해안권 교통망 확보·관광산업 기대

완도군민의 숙원인 신지~고금간 연륙교 건설사업이 시작된다.

완도군은 신지와 고금도를 잇는 연륙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등 진통 끝에 확정돼 오는 10월 일괄입찰 방식(턴키)으로 공사가 본격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총 연장 4.24km 규모로 건립될 이 연륙교는 해상교량 1.35km, 접속도로 2.89km, 폭 11m의 2차선 강사장교 형태대로 만들어진다. 사업비 742억원이 투입되는 연륙교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남해안권 도서지역의 교통망이 크게 확충되고, 아울러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륙교는 지난 2006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07년 기본 조사를 거쳐,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30일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내년 5월 첫삽을 떠 오는 2015년 준공예정이다.

완도군의 동부권을 연결할 신지~고금 연륙교는 국도 77호선 가운데 유일하게 개통되지 않은 구간으로 남아 있어 김영록 국회의원과 김종식 완도군수 등이 해당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한 결과 성사됐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이 연륙교가 준공되면 서남해안권 도서지역의 교통망 확



총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지방도 830호선인 약산면에서 금일, 금당, 고흥, 여수간 구간도로를 국도 27호선으로 승격시켜 다도해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1999년 고금과 약산을 잇는 약산대교를 시작으로 신지대교(2005년), 금일 소량대교(2006년), 고금대교(2007년), 보길대교(2008년)를 건설해 개통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전 남



수박·멜론 품평회

영암군이 지난달 30일 도농통합 회의실에서 농산물 바이어와 대도시 도매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박·멜론 품평회를 갖고 있다.

영암군이 지난달 30일 도농통합 회의실에서 농산물 바이어와 대도시 도매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박·멜론 품평회를 갖고 있다. (영암군 제공)

현장과 시각

상향식 평가 논란 한심하다



박영진
동부취재본부 기자

전공보 광양시지부가 최근 5급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향식 평가를 시행하고 나선 데 대해 광양시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시지부 논리는 수직적인 조직구조다 수평적인 조직구조가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며, 상향식 평가야말로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을 높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특히 하위직의 경우 직접 지역민들을 접촉하며 다양한 행정환경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지역민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해 조직발전에도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위직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시지부 관계자는 "상명하달식 조직운영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막고, 하위직의 역량발휘를 저해하는 등 비민주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이번 상향식 평가는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회할 뜻을 굽음을 밝혔다.

그러나 광양시의 입장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6급 이하 직원들이 간부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간부들은 집단행위 금지, 복종의 의무위반 등을 내세워 지난달 29일과 30일 각 부서를 돌며 설문조사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들 간부들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당부서가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방법도 논쟁이 없고 무슨 근거로 평가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광양시는 이번이 평가가 강행한 전공보 간부들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평가를 둘러싼 후유증이다.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든, 공무원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돼 생산적인 조직운영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 설상가상으로 지역민들을 받들어 섬겨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하는 모습만 보일 경우 지역민들이 갖는 좌절과 실망은 적지 않을 것이다.

시공무원 조직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은 지역과 지역민들의 애정이 있어야 존재한다. 지역과 지역민을 외면한 공무원 조직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말과도 통한다.

공무원에 대해 어찌면 지역민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지역민들은 '먹고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치열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환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경기침체라는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고용창출과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공무원들에 지역민들의 애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pyj4079@kwangju.co.kr

“나주시장 선처해달라”

학생 동원 서명 ‘빈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신정훈 나주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 서명에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동원된 사실이 알려져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4일 나주시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광주 고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현재 직무가 정지된 신 시장의 구명을 위해 최근 나주시 이장·동장단을 비롯해 주민자치

위원회 등 일부단체들은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나주 A여중에서 반장을 맡고 있는 B양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신 시장 탄원서에 서명 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서명용지를 나눠주면서 학부모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오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주민 임모씨가 1일 나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B양이 학생들에

게 서명용지를 나눠주면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도 서명을 받아오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알려지게 됐으며 이후 과문이 확산되고 있다. 임씨는 ‘제발 애들한테는 탄원서를 받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애들까지 어른들의 정치놀음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나주시 중앙동)씨도 “화훼단지 조성 사업자가 신용불량자인데도 1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건 잘못됐다”면서 “이를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호도해 학생들에게까지 서명용지를 돌린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비단 여론을 접한 나주교육청은 “진상을 파악한 결과 30여명의 학생들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의 서명철회를 학교측에 지시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choi@

천년 비색 간직하고 세계로 가는 강진청자

1차분 90점 美 수출

천년 비색의 신비를 간직한 강진청자가 첫 해외 수출길을 개척했다. 강진청자박물관은 지난달 30일 민간 도요업체인 탐진요(대표 김경진·50)에서 생산된 청자 90점이 미국 관광도시인 라스베이거스로 수출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선적본은 올 연말까지 수출될 1천여점 가운데 1차분으로 청자 매병과 주병, 생활자기 등이며 가격은 600여만원이다.

강진청자가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전세계 순회전 과정에서 일부 현지 판매된 적은 있지만 정식 수출절차

를 밟아 나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해외 순회전, 해외도에 작가와의 교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이번 수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출확대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지난해 미국 6대 도시 순회전을 가졌으며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강진청자 4점과 칠랑청자를 영구 전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인 강진청자가 해외 시장에 수출겠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강진과 한국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현직검사 초청 강연 등 안도경찰 증거 분석실 개소

농촌소 청렴도 높이기 흉악범죄 과학수사 길렀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중원)가 현직 검사를 초청해 강연을 갖는 등 청렴·윤리경영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지역본부의 지난달 29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내부 사업관리팀과 유지관리팀, 지사 사업현장 공사감독 소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분기 공사 감독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현직 검사 등 외부강사로 초청해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의식을 고취시켰으며, 공사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날로 각종 흉악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신속·정확한 범죄해결을 위해 안도경찰서에 과학수사 증거분석실이 문을 열었다.

안도경찰서(서장 김재석)는 지난달 30일 경찰서 별관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거 분석실 개소식을 가졌다. 과학수사 증거분석실은 증거재판주의와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 증거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증거분석실은 과학수사 사무실, 증거물 분석실, 증거물 보관실로 구성돼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양서·과충류가 한자리에

함평 60억 들여 생태공원 조성

뱀을 이용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키 위해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양서·과충류 조성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부지 조성, 진입도로 개설, 방문자 센터, 조경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계약을 완료했다. 또 총 160억원(국비 96억, 지방비 64억)의 사업비 중 올해까지

8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사업비로 국비 43억원, 지방비 28억원 등 총 71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전남도에 신청해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특히 군은 조만간 60억원 규모의 뱀 주제 전시관 건립공사를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뱀 모양의 독특한 건축물로 건축한 뒤 내관 건물을 개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근에 위치한 자연생태공원, 함평역스모공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독립운동 역사관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종합 생태 테마관광의 명소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일대 8만5천여㎡에 조성되는 양서·과충류 생태공원에는 뱀 주제전시관, 과충류 생태관, 악어 연못, 악어공연장, 양서·과충류 놀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함평=함은희기자 hwang@

법원부동산경매정보					공인중개사/경매분석사: 정미경	
국민법률경매(주) 서구청옆 광주세무사타운					TEL: 062-351-0664	
					H·P: 010-7628-0664	
구	소재지	지번	면적(m²/평)	건평(m²)	최저가	회차
영광군	영광읍	대지	4800/14522	3544	294만	2회
	대지	2900/878	2900	1만1천	119만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3722/1125	292만	291만	1회
	대지	3000/907	294만	291만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38/133	394만	294만	1회
	대지	1480/438	1만	1만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929/811	192만	7만	1회
	대지	2198/894	1만1천	1만1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615/108	7만	5만	1회
	대지	1191/281	1만1천	1만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907/575	3만2천	1만9천	1회
	대지	2983/907	2만3천	2만3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473/250	2만2천	1만2천	1회
	대지	1443/438	1만2천	1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322/272	1만2천	6만2천	1회
	대지	1779/539	2만7천	4만7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980/293	9만	8만4천	1회
	대지	2983/907	2만3천	2만3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585/179	5만	2만2천	1회
	대지	5871/1775	4만2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742/528	1만7천	1만1천	1회
	대지	1980/594	3만2천	3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223/289	1만2천	4만2천	1회
	대지	1243/279	1만2천	1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820/801	2만4천	4만2천	1회
	대지	2740/831	2만4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6381/1824	3만1천	4만2천	1회
	대지	1253/398	2만2천	4만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880/801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088/239	1만	1만	1회
	대지	3788/1149	7만2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81/287	1만7천	1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088/239	1만	1만	1회
	대지	3788/1149	7만2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81/287	1만7천	1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088/239	1만	1만	1회
	대지	3788/1149	7만2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81/287	1만7천	1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088/239	1만	1만	1회
	대지	3788/1149	7만2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81/287	1만7천	1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088/239	1만	1만	1회
	대지	3788/1149	7만2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81/287	1만7천	1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088/239	1만	1만	1회
	대지	3788/1149	7만2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81/287	1만7천	1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088/239	1만	1만	1회
	대지	3788/1149	7만2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81/287	1만7천	1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088/239	1만	1만	1회
	대지	3788/1149	7만2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81/287	1만7천	1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088/239	1만	1만	1회
	대지	3788/1149	7만2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81/287	1만7천	1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088/239	1만	1만	1회
	대지	3788/1149	7만2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81/287	1만7천	1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088/239	1만	1만	1회
	대지	3788/1149	7만2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81/287	1만7천	1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1088/239	1만	1만	1회
	대지	3788/1149	7만2천	4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481/287	1만7천	1만2천	1회
	대지	2004/908	3만	2만2천	1회	
영암군	영암읍	대지	2620/787	2만2천	2만2천	1회
	대지	2186/885	2만1천	2만2천	1회	